

## ☞ 항공 및 인공위성 영상

항공 사진이나 인공위성 영상은 주로 원격 탐사로 만들어지는데, 비행기와 인공위성에서의 촬영 및 스캐너 작업을 거쳐 사진과 영상의 형태로 표현된다. 이러한 자료들은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것 이상의 정보를 보여 주므로 먼 거리의 장소와 지역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데 유용한 수단이 된다.

지리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공위성 영상은 기후 관측용 인공위성과 육지 관측용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영상이다. 다양한 색상이 있는 인공위성 영상들은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으며, 영상에 나타난 지역을 스케치하고 발견한 사항들을 기록하게 하면, 장소나 지역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 등 다양한 지리 학습을 하는 데 유익하다.

항공 사진 또한 입체감과 사실감이나 다양한 색이 있어서 학생들에게 장소나 지역에 대한 학습을 자극할 수 있는 좋은 도구이다. 특히 항공 사진은 지도의 경관을 시각화하기 위해 지도와 병합하여 사용하면 효과가 크다.

- 서태열, 『지리 교육학의 이해』

## ☞ 국토 정보 플랫폼

국토 정보 플랫폼은 국토 지리 정보원 공간 정보 서비스 체계에서 공공과 민간의 정보 활용과 유통을 담당하는 대표 서비스 창구이다.

### 지도 받기 서비스

- 수치 지도
- 항공 사진
- 정사 영상
- 국가 기준점
- 공개 DEM
- 은 맵
- 구 지도



### 국토 정보 서비스

- 위성 기준점
- 국토 변화 정보
- 극지 공간 정보
- 국가 수직 기준 연계
- 근대 측량 자료
- 독도

국토 정보 플랫폼은 다양한 지도 자료와 시각화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국토 정보 맵을 통해 수치 지도, 항공 사진, 정사 영상 등 다양한 지도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으며, 공간 정보를 통해 우리나라 국토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오픈 API, 지명 사진, 지리지 및 지명 유래집, 대한민국 국가 지도집 등 다양한 정보에 대한 활용을 지원한다.

- 국토 정보 플랫폼

## ☞ 살기 좋은 마을, 주민 스스로 만들어요.

경상북도 경주시가 마을 공동체 사업을 통한 지역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다. 경주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1억 5천만 원을 들여 마을(주민) 공동체 사업에 나선다.

마을 공동체 사업은 주민들이 힘을 모아 마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마을 발전을 위해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발굴·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경주시는 지난 2019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주시는 지난 2월 문화·복지·환경 등 3개 부문 사업을 공모하였다. 올해는 공모에 선정된 20개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마을 공동체가 이미 만들어진 곳의 계속 사업이 12건, 마을 공동체 기반을 마련하는 신규 사업이 8건이다.

마을 환경 개선 부문에서는 현곡면의 '하구1리 행복 마을 만들기'와 선도동의 '서악 큰마을 주민 공동체 만들기'가 눈에 띈다. 하구1리 행복 마을 만들기는 주민들이 협력해 오랜 기간 쓰레기가 쌓이며 방치된 마을 입구를 꽃밭으로 가꾸고 마을 담장을 새단장하는 사업이다. 서악 큰마을 주민 공동체 만들기는 토종 식물 가꾸기와 탄소 중립 쓰레기 배출제로 친환경적인 마을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한다.

골목 상권 활성화 부문에서는 매주 토요일 불국동 일원에서 소상공인 및 예술인들이 협업해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진현동 밤도깨비 마켓'과 '감포 제2회 골목 문화제와 100년 골목 활성화' 사업이 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동 육아·돌봄 문화 활성화 부문에서는 소외 계층을 발굴해 행복 도시락을 배달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해 주는 동천동의 '행복 더하기'와 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외동읍의 '아이+부모+이웃이 함께하는 꼬마 장터' 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경주시는 오는 9월까지 각 사업을 마무리한 뒤 11월쯤 마을 공동체 활동 내용을 담은 성과물 전시와 정보 공유를 위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 매일신문, 2023. 7. 19.

## ☞ 아동 친화 도시

### • 아동 발달과 도시 환경 간의 관계

도시에 살게 될 아동의 수가 점차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에 따라, 우리는 아동의 전반적인 생활을 담고 있는 도시 환경에 대해 진단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아동기에 접하게 되는 공간과 환경에 대한 정서적·사회 문화적 경험을 비롯한 물리적 공

간들은 인간의 전 생애를 통틀어 보았을 때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아동이 접하게 되는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 문화와 역사적 맥락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도시는 아동에게 우수한 교육과 문화, 취미, 여가 활동 등의 유익하고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과 교통 체계 등은 아동들이 더욱 좋은 물리적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렇듯 사회적·물리적으로 좋은 도시 환경은 잠재적으로 아동의 성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이에 반해 부정적 영향도 상당하다. 고도의 도시화 현상과 인구 밀집에서 기인하는 주거 공간의 협소화, 아동의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놀이 공간과 녹지 부족, 교통 혼잡, 여러 환경 오염, 지역사회의 팽배한 이기주의 등은 고스란히 아동에게 전달된다.

#### • 아동 친화 도시의 정의

아동·청소년 친화 도시란 ‘아동과 청소년들의 기본적 생존권뿐만 아니라 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참여할 권리를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 시설과 서비스가 충분히 마련된 도시’로 정의될 수 있다.

#### • 유니세프(UNICEF) 아동 친화 도시의 수행 기능

- 아동이 도시에 대한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 아동이 원하는 도시에 대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 아동이 가족, 지역사회 및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보건, 교육, 쉼터 등의 기본적 서비스에 대한 수혜, 깨끗한 물 등의 적절한 위생 시설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한다.
- 착취, 폭력, 학대 등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한다.
- 아동이 스스로 거리에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거리를 유지·보수한다.
- 아동이 또래를 만나 즐겁게 놀 수 있도록 한다.
- 다양한 동식물들을 접할 수 있는 녹지 공간을 제공한다.
-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한다.
- 문화적·사회적 축제나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민족적 기원, 종교, 소득, 성별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동등한 시민으로서 도시 내의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이효진, 「초등학생의 참여를 통한 어린이 친화적 근린 환경 조성 방안에 관한 연구」

#### ☞ 학생들의 시골 마을 교통 문제 해결 사례

현북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민주화 운동 기념 사업회가 개최한 청소년 사회 참여 발표 대회에서 행정 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현북중 학생들은 ‘우리 마을 교통 약자를 배려한 시내버스 만들기’를 주제로 꼼꼼하게 조사하고 실천한 것을 바탕으로 발표에 나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학생들의 문제 인식은 하루 5번밖에 버스가 오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배차 간격은 3시간, 막차는 4시 50분이고 그나마 버스가 올 때마다 힘껏 손을 흔들어서 기사님의 눈에 띄어야 탈 수 있다. 긴 대기 시간, 넓은 배차 간격, 너무 이른 막차 시간, 버스 정류장의 열악한 환경 등은 농촌 주민도 마땅히 누려야 할 복지를 전혀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특히 주로 승용차를 이용하는 중·장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통 약자인 청소년과 노년층을 위해서는 시내버스 운행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절감한 것이다. 학생들은 우선 버스 정류장 환경 실태 조사에 나섰다. 방치된 전동 휠체어, 불법 배출된 생활 쓰레기, 금연 마크가 부착되었음에도 여기저기 버려진 담배꽂초 등 온통 문제투성이였다.

학생들은 교통 약자로 설정한 청소년과 노년층의 시내버스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군청과 대중교통 정보 누리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시내버스의 문제점에 공감하고 있어 반드시 정책 제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벽지 노선이 많고 이용객이 적은 양양군은 버스 공영제 도입이라는 정책적 판단과 함께 차지 단체에서는 버스 정류장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학생들은 양양군청에 정류장 및 버스 운행 개선을 촉구하는 청원을 제출한 데 이어 양양군 의회를 방문해 정책 제안서를 전달해 현재 인근 지역에 계획되어 있는 농촌형 교통 모델 마을버스를 빠른 시일 내에 확대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하지만 자신들이 제안한 공공 정책이 실현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 판단한 학생들은 본인들의 힘으로 지금 당장 바꾸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 결과 정류장 환경 개선 캠페인을 시작했다. 마을버스 정류장을 방문하여 쓰레기통을 비우고 거미줄을 쓸어 냈으며 방치된 의자와 거울 등 생활 폐기물도 말끔하게 정리하는 등 환경 개선에 나섰다. ○○○ 학생은 “평소 사회에 관심이 많았지만 ‘어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하며 힘든 환경을 보고도 책임을 회피했다.”라며 “이번 사회 참여 발표 대회를 계기로 어른들에게 어려도 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 준 것 같아 뿌듯하다.”라고 말했다.

- 강원도민일보, 2019. 11. 9.